



13,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세계 전기차 경주대회 '포물레 서울 E-PRIX'가 열리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ESG경영 일환으로 후원해 나간다.

서울 E-PRIX 홈페이지 캡처



## 스포츠 ESG 하나은행 “이번엔 전기차 레이싱”

### ESG 포커스

하나은행이 스포츠를 매개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존 축구, 농구, 골프 등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전기차 경주대회'를 후원한다.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세계 전기차 경주대회 '포물레 서울 E-PRIX'가 열린다. 포물레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대회다.

포물레에 내세운 핵심 가치는 '친환경'이다. 포물레(F1)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대회를 주관하는 FIA는 레이싱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및 경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보이는 것이 바로 전기차들이 출전하는 '친환경 포물레'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파워트레이너로 사용해 순수하게 전기로만 구동하는 경주다. 특히 이번 대회는 레이싱에 쓰인 타이어나 트랙에 설치된 광고 판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아울러 포물레 역사상 최초로 티켓에 탄소배출권도 적용됐다. 티켓을 구매하면 탄소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친환경 대회의 의미를 더욱 깊었다.

하나은행의 ESG 중장기 비전인 'Big Step for Tomorrow'의 일핵상통한다. '저탄소 경제 체제 이행 촉진'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투명성·책임경영 기반 의사결정'이 중장기 비전의 골자다. 포물레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내 친환경

저탄소 경제·금융 통한 사회 기여 일환 13~14일 포물레 서울 E-PRIX 후원 경주차는 물론 타이어·광고판도 친환경 벤투호·K리그 후원 등 축구에도 진심

경 전기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탄소중립 달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하나은행이 스포츠를 매개로 한 ESG 경영에 뛰어들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찌감치 스포츠 후원으로 사회적 기여에 나섰다. 가장

공을 들여온 스포츠는 축구다. 1998년 시작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이 대표적 사례다. 그 이후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은행의 로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 2017년부터는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K리그1의 타이틀 스폰서도 담당한다. 올 시즌 K리그1(1부)의 공식 명칭은 '하나원큐 K리그2022'다. 2부리그 격인 K리그2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FA컵도 하나은행이 함께한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모두 모여 정상을 가리는 무대인 FA컵의 공식 명칭도 '2022 하나원큐 FA컵'이다.

2020년에는 K리그2의 대전 시티즌을 인수했다.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명칭을 바꾼 뒤 재창단하며 축구에 '진심' 임을 보였다. 대전 구단을 활용용 ESG 경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지난 2월에는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기획된 2022 대전하나시티즌 테이블석 시즌권 브랜드 'GREEN ZONE'을 출시했다. 'GREEN ZONE'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 '하나드림스쿨', 'ESG 하나원정대', '클린 스타디움'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1시즌 K리그 사랑나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축구 외 종목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는다. 2012년부터 '하나원큐 여자농구단'을 운영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여자프로테니스(WTA)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며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노력 중이다. 아울러 비인기 종목인 루지, 롤러스포츠 등에도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빅스포츠 이벤트'인 2018년 평창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의 공식 후원은행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과 다문화가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21일(이하 한국 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장애인 US오픈 골프대회에서 하나은행 골프단이 후원하는 이승민(25)이 자체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휠체어 펜싱국가대표 김선미(32)를 광고모델로 발탁하거나 장애인 체육 특별전시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ESG 활동을 보였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상현 기자 ksh1@sporbiz.co.kr



K리그와 하나은행이 함께한 '든든미래 어시스트'. 든든미래 어시스트는 각 구단을 찾아 K리그 전체 선수, 코칭 스태프를 대상으로 금융지식을 교육하고,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럭비 대표 상비군 첫 국제대회 세븐스 챌린저 시리즈 칠레행

한국 럭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단이 월드컵 비(WR) 세븐스 챌린저 시리즈 2022에 출전하기 위해 칠레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한럭비협회는 6일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회가 열리는 칠레로 떠났다고 전했다.

세븐스 챌린저 시리즈 2022는 럭비 종목의 양봉하는 7·10·15인제 럭비 대표구인 WR이 주관하는 7인제 국제대회다. 1부제 대회의 WR 세븐스 시리즈에 이은 2부제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내년 열리는 1부 대회 HSBC WR 세븐스 시리즈 2023 출전 티켓을 거머쥔다. 한국은 파푸아뉴기니, 조지아, 칠레와 연이어 예선전을 치른다.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한럭비협회는 국군체육부대와 상비군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 상비군 팀을 공식 출범했다. 상비군 운영으로 럭비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선수를 관리해 경기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은(59) 대한럭비협회장은 "협회장으로 공인했던 럭비 인재들을 더 확보하고 체계적인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선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선수들이 월드컵 세븐스 챌린저 시리즈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회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12일(이하 한국 시각)부터 14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한국을 비롯해 총 12개 팀이 참가한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올바른 NEWS · 정확한 NEWS · 새로운 NEWS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신문’ 한스경제

